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Ego-resilience on Mother-child Attachment

김지현¹ 신혜영²

Jihyun Kim¹ Hae Young Shi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ego-resilience on mother-child attachment. More specially, mother-child attachment for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internal working model.

Methods: Participants were 190 mothers of fourth and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Scale(Shin, 1997), the Scales of Ego-resilience(Yoo & Shim, 2002), and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Yang, 2006) were used to measure variabl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Second, mother-child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resilience. Next, maternal parenting stress_interaction and ego-resilience explained mother-child attachment_trust. Last, maternal stress_interaction explained mother-child attachment_isolation.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ego-resilience influenced mother-child attach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¹ 제1저자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교신저자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1070005@hycu.ac.kr)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stress, mother's ego-resilience, mother-child attachment

I. 서론

애착은 생애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영아는 애착대상자인 양육자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울음, 미소와 같은 애착행동을 보인다. 이때 양육자가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영아는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지만, 거부적이거나 비일

관적인 반응을 보이면 영아는 양육자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58).

이러한 애착 관계는 생애 초기 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Bowlby, 1958; Bretherton & Munholland, 1999). 애착 관계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관점은 내적실행모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내적실행모델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경험, 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련의 규칙체계를 의미한다. 각 개인은 생애 초기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애착 대상과 자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발달시키게 되며, 애착 관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전 생애 동안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러한 애착안정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영아 혹은 유아기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에 초점을 두고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거나, 애착안정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선영, 정지나, 2019; 문영경, 2020; 문소현, 2009;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영유아 및 부모 특성 관련 요인,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적 요인이 애착안정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옥순, 2006;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7;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유아 특성 관련 요인으로 영유아의 기질을,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을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험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 혹은 성인애착유형 등을 연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애착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노지영, 황혜신, 2012; 문영경, 민현숙, 2008; 장영애, 박정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애착안정성 관련 선행연구와 애착 관계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된다는 내적실행모델을 근거로 아동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동기 후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로 급격한 신체변화가 시작되면서 심리상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이 시기 아동의 발달 특성상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또래 관계 및 교사 관계가 언급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안은미, 조수민, 정익중, 2018; 이운경, 김민주, 2019; Rubin et al., 2006). 비록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더라도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Dwyer, 2005), 가족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유아기 및 아동기 초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이 시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애착안정성이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지선, 김춘경, 2016; 김희경, 김성훈, 2018; Ammaniti, van Ijzendoorn, Speranza & Tambelli, 2000). 이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이 영유아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시기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은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언급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부모의 생각과 기대 그리고 자녀의 행동이 다를 때 겪는 어려움과 자녀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Abidin, 1992). Cr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녀와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부모에게 있어서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책임이 커졌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해미, 1994; 한세영, 1996). 현재까지 진행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그 연구대상이 주로 영유아기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노지영, 황혜신, 2012; 이경혜, 2002; 장영애, 박정희, 2009; 한태숙, 2008).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 이유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특성상 직접적인 신체적 돌봄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어머니의 역할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동기 후기 혹은 청소년 초기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 줄어드는 시기이나 자녀의 발달 특성상 이 시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들이 늘고 있는데(중앙일보, 2019),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빠른 사춘기의 출현 등으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부모를 당황하게 한다(정옥분, 2009). 최근 들어 사춘기 시기가 이전 보다 빨라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등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응능력으로서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거나(Block & Block, 1980),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한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성격 유형의 한 측면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탄력적인 개인의 성격 특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성격 특질로 이해되는 탄력성은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Rutter, 1985). 자아탄력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한 연구들은 개인이 역경, 위기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적절한 적응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

정이라고 보았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나 역경,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의 기능과 수행을 유지하거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 대상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이거나(현인순, 양희택, 2019; Baraitser & Noack, 2007; Easterbrooks, Chaudhuri, Bartlett, & Copeman, 2011), 어머니 관련 변인이 자녀의 자아탄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권유경, 정소희, 2012; 권은경, 2008; 설엽추, 2020; 이미혜, 2011).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유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현인순, 양희택, 2019),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자녀 발달 및 적응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혜, 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윤난호, 장성예, 그리고 이주연(201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가족건강성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처 및 적응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양육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좀 더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높은 수준의 자신감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일반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일부 있으며,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고혜진, 2005; 이진화, 강은진, 2014),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어머니가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기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거나, 애착안정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강선영, 정지나, 2019; 문영경, 2020; 문소현, 2009; 배지아 등, 2016; Rubin et al., 2006).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 역시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노지영, 황혜신, 2012; 문영경, 민현숙, 2008; 장영애, 박정희, 2009),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의 경우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보거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연구대상의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아 일반가정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드물다(권유경, 정소희, 2012; 권은경, 2008; 설엽추, 2020; 이미혜, 2011; 현인순, 양희택, 2019; Baraitser & Noack, 2007; Easterbrooks et al.,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애착안정성과 자녀의 학교 부적응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하여 이 시기 어머니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이 시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_소외감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한 곳에 재학 중인 4-5학년 아동의 어머니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학년 자녀의 어머니는 114명, 5학년 자녀의 어머니는 76명이었으며, 남아의 어머니는 91명, 여아의 어머니는 99명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세였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59.2%),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30.6%)이었다. 어머니 취업 여부의 경우 전업주부가 반 이상이었으며, 취업한 경우가 40%정도였다.¹⁾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가 Abidin(1992)의 척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부모 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 특성

1) 어머니 학력과 취업에 대한 자료는 미응답이 많아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관련 스트레스이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모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나는 내 아이를 위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포기하고 있다.’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결국은 내가 관여하게 만든다.’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아이는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와 같다. 어머니는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 가 .72,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 가 .81,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번안한 뒤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원래 4점 척도이나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3)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R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을 번안한 양애경(2006)의 부모 애착 도구 중 의사소통/신뢰감 영역의 11문항과 소외감 영역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질문지에 응답하는 도구로 예비 조사를 통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 아이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아이의 판단을 믿어 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동 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어머니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외감 관련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어머니와 아동 간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며 어머니와 아동 간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의사소통/신뢰감이 .80이었고, 소외감이 .6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들이 연구대상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도구의 Likert 척도를 수정하여 각각 6점 척도와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의 4, 5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4학

년과 5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 225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203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질문지에 대한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19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24.3점,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19.4점, 자녀 특성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은 20.6으로 이를 5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1.9점~2.4점으로 중간수준부터 중간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자아탄력성의 평균이 58.1점으로 이를 6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4.2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자아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의 평균은 34.2점, 소외감의 평균은 6.8점으로 이를 4점 척도의 문항평균으로 전환하면 3.1점과 1.7점으로 의사소통/신뢰감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외감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성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N = 190)

변인	M	SD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	24.3	4.7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	19.4	5.2
자녀특성 스트레스	20.6	5.8
어머니 자아탄력성	58.1	9.3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		
의사소통/신뢰감	34.2	4.0
소외감	6.8	1.7

다음으로,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신뢰감과 부모 관련 스트레스($r = -.30, p < .001$), 부모-자녀 역기능적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r = -.60, p < .001$) 그리고 자녀 특성관련 스트레스($r = -.42, p < .0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영역인 소외감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소외감과 부모 관련 스트레스($r = .27, p < .001$), 부모-자녀 역기능적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r = .62, p < .001$) 그리고 자녀 특성관련 스트레스($r = .40, p < .0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의사소통/신뢰감이 낮고, 소외감이 높아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자아탄력성과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r = .34, p < .001$)은 정적 상관을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r = -.18,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어머니-아동 애착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과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은 어머니가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 (N = 190)

변인	1	2	3	4	5	6
1. 부모 스트레스	1					
2.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	.44***	1				
3. 자녀 특성 스트레스	.26***	.66***	1			
4. 어머니 자아탄력성	-.42***	-.31***	-.25***	1		
5.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	-.30***	-.60***	-.42***	.34***	1	
6. 애착안정성_소외감	.27***	.62***	.40***	-.18*	-.48***	1

*** $p < .001$, * $p < .05$.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간 상관계수는 모두 $r = .70$ 미만이었고, Durbin-Watson 계수는 2.02~2.03으로 2에 근접하고 VIF는 1.00-1.78의 범위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영역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자녀특성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여 단계적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을 3%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들이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의 약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안정성_의사소통/신뢰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190)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부모 관련 스트레스	-.08	-.10	-.02	-.03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38	-.53***	-.36	-.51***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03	-.05	-.02	-.03
어머니 자아탄력성			.08	.20**
R^2	.37		.40	
ΔR^2			.03	
F	36.52***		31.01***	

** $p < .01$, *** $p < .001$.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인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자녀특성관련 스트레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함께 투입하여 단계적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을 의미 있게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을 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애착안정성_소외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190)

변인	모형 1		모형 2	
	B	β	B	β
부모 관련 스트레스	-.00	-.01	.00	.00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	.21	.63***	.21	.63***
자녀 특성 관련 스트레스	-.00	-.01	-.01	-.00
어머니 자아탄력성			.00	.02
R^2	.38		.38	
ΔR^2			.00	
F	36.28***		28.59***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문항평균은 1.9점에서 2.4점으로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의 문항평균은 4.2점으로 1-6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의 문항 평균은 3.1점으로 1~4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의 문항평균은 1.7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경우 중간 수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노지영, 황혜신, 2012; 문소현, 2009; 양애경, 2006; 황현주, 정옥분, 2006). 애착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유아 대상 연구결과는 중간 수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의 애착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경우와 연구대상의 차이와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관되게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결과 역시 중간 수준 혹은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김춘경, 2016; 김희경, 김성훈, 2018; 배지아 등,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애착안정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및 애착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혜진, 2005; 장영애, 박정희, 2009; 황현주, 정옥분, 2006; Baraiter & Noack, 2007; Easterbrooks et al.,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는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가 중요해지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아동간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Dwyer, 2005). 영유아기 애착안정성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그 중요성으로 이 시기 어머니들의 요구 및 어려움을 반영한 다양한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어머니의 요구에 맞춘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애착안정성이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 시기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쳤고,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소외감에는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머니와 아동의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으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노지영, 황혜신, 2012; 이경혜, 2002; 장영애, 박정희, 2009; 한태숙, 2008).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결과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면 영유아기 어머니와는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차이로 인해 일관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영유아의 어머니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노지영, 황혜신, 2012),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장영애, 박정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관련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

학년 아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어려움이 어머니-아동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자녀의 발달특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에 접근하는 연령도 낮아지면서(매일경제, 2019), 부모는 자녀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대화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최영인, 2017). 급격한 사회 변화와 아동의 빠른 신체적 성장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양육 관련 스트레스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중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나눠서 살펴보거나 돌봄 관련 영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아동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민감하게 측정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관련 문제 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인 의사소통/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 및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고혜진, 2005; 이진화, 강은진, 2014).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직면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적 사건에 잘 적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응능력을 보인다. 즉, 자아탄력적인 어머니는 가족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자녀양육, 가사부담 등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자아탄력적이지 않은 어머니보다 잘 견뎌낸다. 자녀의 발달 및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을 변화시켜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자아탄력성을 고정적인 성격특성을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나 역경,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아의 기능과 수행을 유지하거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한다(Cicchetti & Rogosch, 1997; Garmezy & Rutter, 1985).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언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이 보강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윤난호 등, 2018).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연구대상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처럼 본 연구 결과는 일반가정 어머니, 특히 일반가정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함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가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 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이 시기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교육

과 함께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에 재학 중 4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 및 자녀 연령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질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응답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및 면접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어머니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아동의 관계를 측정하는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대상 선행연구의 부족과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가능성 등으로 그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 이외의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애착안정성의 하위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부부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복합적 모형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탐색해 본 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선영, 정지나 (2019). 영아의 기질, 부모-영아 애착,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8(5), 464-475. doi:10.5934/kjhe.2019.28.5.463
- 강옥순 (2006). 어머니의 애착유형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유경, 정소희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4), 219-243.
-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김춘경 (2016). 초기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관계 분석-부모애착, 부모감독,

- 공감,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399-418. doi:10.15703/kjc.17.3.201606.399
- 김희경, 김성훈 (2018). 사춘기 학생의 부모 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5(3), 63-87. doi:10.21509/KJYS.2018.03.25.3.63
- 노지영, 황혜신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27-40. doi:10.5934/KJHE.2011.21.1.27
- 매일경제 (2019. 01). **초등 6학년 10명 중 9명 스마트폰 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1/6088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 문소현 (2009). 학령기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 양육태도, 애착안정성 및 외로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3), 401-408. doi:10.4040/jkan.2009.39.3.401
-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7). 부모의 아동기 애착,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9, 252-268.
- 문영경 (2020).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이후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온정적 양육행동의 통합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41(1), 29-45. doi:10.5723/kjcs.2020.41.1.29
- 문영경, 민현숙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65-176.
- 박해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아, 도현심, 박보경, 김민정 (2016).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2), 111-125. doi:doi.org/10.5723/kjcs.2016.37.2.111
- 설염추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자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2(1), 45-68. doi:10.17927/tkjems.2020.32.1.45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은미, 조수민, 정익중 (2018).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외보호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2), 127-149. doi:10.19034/KAYW.2018.20.2.06
- 양애경 (2006). 부모의 맞벌이 유무와 유아-부모, 유아-교사 애착안정성간의 관계. **아동교육**, 15(4), 197-212.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난호, 장성예, 이주연 (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족건강성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1), 315-334. doi:10.22590/ecee.2018.22.1.313
- 이경혜 (2002).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애착안정성 형성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3(1), 153-171.

- 이미혜 (2011). 어머니-자녀 애착 및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3(1), 65-80.
- 이운경, 김민주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유형: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40(3), 105-121. doi:10.5723/kjcs.2019.40.3.105
- 이진화, 강은진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1), 6576-6586. doi:10.5762/KAIS.2014.15.11.6576
- 중앙일보 (2019. 05). 빨라진 사춘기 ‘안드로메다’에서 온 초등 자녀와 소통하는 법. <https://news.joins.com/article/23459997>에서 2019년 5월 7일 인출
- 장영애, 박정희 (2009). 어머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7(2), 213-232.
- 정옥분(200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영인 (2017). **초등 4학년, 아이의 사춘기에 대비하라**. 서울: 카시오페이아.
-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숙 (2008).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인순, 양희택 (2019). 장애자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4), 643-652. doi:10.21742/AJMAHS.2019.04.61
-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95-115.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doi:10.1207/s15374424jccp2104_12
- Ammaniti, M., Van Ijzendoorn, M. H., Speranza, A. M., & Tambelli, R. (2000).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during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xploration of stability and chang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3), 328-346. doi:10.1080/1461673001000158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10.1007/bf02202939
- Baraitser, L., & Noack, A. (2007). Mother courage: Reflections on maternal resili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23(2), 171-188. doi:10.1111/j.1752-0118.2007.00016.x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doi:10.1037/0022-3514.70.2.349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9-11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icchetti, D., & Rogosch, F. A. (1997). The role of self-organization in the promotion of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797-815. doi:10.1017/s0954579497001442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doi:10.1111/j.1467-8624.1990.tb02889.x
- Dwyer, K. M. (2005).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Human Development*, 48(3), 155-182. doi:10.1159/000085519
- Easterbrooks, M. A., Chaudhuri, J. H., Bartlett, J. D., & Copeman, A. (2011). Resilience in parenting among young mothers: Family and ecological risks and opportunit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3(1), 42-50. doi:10.1016/j.chilyouth.2010.08.010
- Garnezy, N., & Rutter, M. (1985). Acute reactions to stress. In M. Rutter & L. Hersov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pp. 152-17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D.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Vol. 3 (pp. 571-645).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doi:10.1192/bjp.147.6.598

논문투고: 20.10.13
수정원고접수: 20.11.26
최종게재결정: 20.12.09